

장로리더십

포럼-제1강. 21세기 한국교회의 비전과 장로의 리더십

- 주제발표 : 이장로 장로 (고려대학교 교수, 온누리교회) -

I. 문제의 제기

1. 성장을 멈춘 한국 교회
 - 성장을 추이
 - 교회의 life cycle과 변혁의 필요성
2. 평신도와 교역자의 계층 구조
 - 평신도는 잠자고 있는가, 소외당하고 있는가?
 - 평신도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것
 - 평신도와 교역자의 관계 회복은 가능한가?
3. 목사와 장로의 권력 대립
 - 권력, 영향력 및 지위
 - 목사와 장로의 권력 갈등
 - 권력 없는 리더십은 가능한가?
4. 세상과 분리된 교회
 - 왜곡된 세계관
 - '하나님 나라'의 선교 :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갱신될 수 있는가?

II.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나?

1.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
 - 변화를 위한 전략 수립 : 표 참조
 - change agent의 중요성
 - 저항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2. 새로운 비전을 창조하라
 - Visionary Leadership : The Vision Leader
 - Planning the Vision : SMART
 - Communicating the Vision : Optimism, Emotion, Metaphors
 - Building Support for a Vision
 - Maintaining the Vision

- Spiritual Insight

* 사례: 새들백교회, 월로크릭교회, 지구촌교회

3. 변화에 적합한 조직을 세우라 : 경계를 허물라

- 수직적 경계 (Vertical boundaries)
- 수평적 경계 (Horizontal boundaries)
- 외부 경계 (external boundaries)

4. 자기 변혁에 노력하라

- 크리스천 지도자의 10가지 성품 :
- 지도자의 4가지 전문성 :

III. 성도를 온전케 하는 리더십

* 성경본문 읽기 : 엡4:11-16

1. 평신도 재발견

1) '평신도(laity)'라는 말의 뜻

평신도(laity)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스'(laos)는 하나님의 백성(벧전2:9-10)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무리를 일컫는 일반적 단어인 '라오스'를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옛 계약 아래에서 획득했던 모든 것을 이 단어에 담았다. 이에 비하여 평민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라이코스(laikos)는 신약성경에서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¹⁾ '라이코스'는 이 교도들에게는 '무식한 대중'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사제나 레위가 아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²⁾

주후 95년에 로마의 클레멘토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을 가르키는 말로 사용되지도 아니했다.

그리스 로마시대 시 행정제도에는 두 계층이 있었는데, 한 계층은 '클레로스'(kleros, clergy) 곧 행정관들이었고, 다른 계층은 '라이코스'(laikos, layperson) 곧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이었다. 신약성경에서 '클레로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될 때 물려받는 특권과 몫의 의미를 함축한다(골1:12).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성직자인 셈이다.³⁾

1) Paul Stevens, Equipper's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Inter Varsity Press(Downers Grove: Illinois, 1992). 이철민 옮김,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IVP, 1995. 77-87.

2) Hans Kung, op cit., p.86.

3) Paul Stevens, op cit.

2) 평신도는 누구인가? 4)

◎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교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1장 참조)

◎ ‘부르심’(calling)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고전1:9)을 받았다. 부르심에는 자유, 평안, 소망, 영생, 영광 등의 유익이 따른다(갈5:13; 골3:15); 엡4:4; 딤후1:3).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한다(엡5:1; 살전4:7; 살후2:13-14). 이 삶은 신자들의 생활 전체를 의미한다. 교회, 가정, 직장, 사회(엡5:21-6:18; 골3:18-4:17)에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priests), 사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권함과 기능을 수행한다(히8:1:9:11; 뱀전2:4이하). 그리스도인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히10:19-22),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며(뱀전2:5; 롬12:1), 말씀을 전파하고(뱀전2:9), 세례(마28:19)와 성찬(눅22:19)과 사죄(마18:18)와 세상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이다.⁵⁾ 제사장직의 본질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제사장직은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고전12:1-2).

◎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saints)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부르셨다(롬1:7; 히13:24; 계8:4).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다르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구현할 책임이 있다. 성도는 일상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거룩성을 나타내야 한다(고전5:9-10).

2. 예배출석자를 교인으로 만들기(새들백교회 이야기, 제17장)

- 예배출석자를 이해하라
- 소속의 가치를 말해주라
- 새교우반을 필수과정으로 만들라
- 교인서약을 만들라
-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 주라
- 서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
- 소그룹에 소속될 것을 권장하라
- 의사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으라

4) Robert Banks, Redeeming The Routines, Victor Books, 1992. 한화룡 옮김,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IVP, 1994. 34-43.

5) Hans Kung, op cit., 153-162.

3. 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새들백교회 이야기, 제18장)

- 성숙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다.
- 성숙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 성숙은 올바른 열쇠만 찾으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 성숙은 믿음의 지식보다는 행함으로 더 많이 증명되는 것이다.
- 성숙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적인 것이다.
- 성숙은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양한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 성숙한 교회를 위한 새들백의 2020년도 비전 (위의 책, 403쪽)

IV. 전교인을 사역자로 만드는 리더십

1.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⁶⁾

◎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

교회는 자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수단이다. 교회가 그 자신의 세계 속에 오직 교인들을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또 그들을 붙잡아 두기를 원하는 한 복음의 전달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세계 상황에서 복음의 전달은 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정황에 뛰어들려는 열정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선교전선의 무인지대에 들어가야만 한다.⁷⁾

◎ 평신도는 ‘하나님의 선교의 백성’의 대표자

평신도만이 참으로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유대를 실증할 수 있다. 그들은 선교의 전위대요 돌격대이다. 평신도는 성직자의 팔에 들려있는 낚시대가 아니다.

그는 성직자의 조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이다. 평신도가 조수로 되면 성직자를 모방하게 되고, 그는 세상에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이에 반해 교회가 평신도를 하나님의 선교의 백성으로 구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면, 교회의 고립은 해소되고 세계의 중심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설 수 있게 될 것이다.⁸⁾ 성직자들은 섬기는 종으로서 평신도로 하여금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6) J.C.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흠어지는 교회, 제10판, 대한기독교서회, 1994. 94-101.

7) ibid.

8) ibid.

◎ 세상을 위한 봉사자

평신도는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마 5:16).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섬기는 중, 봉사자가 되는 것 뿐이다(빌 2:5-11). 평신도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그 자신을 교회 직분으로 위장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봉사하지 않고 교회내의 작은 섬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2. ‘사역’(ministry)의 개념

◎ ‘사역’의 뜻

신약성경에서 사역(ministry)을 묘사하는 주요 단어들은 섬기다(serve), 종(servant), 섬김 또는 봉사(service)로 헬라어 diakonia와 그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들이다. 희랍인에게 있어 ‘디아코니아’는 식사 시중을 뜻하는 말로서 누구나 즉시 굴종을 연상케 한다. 식사 때 상전은 긴 옷을 차려입고 식탁에 기대어 있고, 종은 띠를 두르고 시중을 들어야 했다. 디아코니아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식사, 부양, 생계를 돌봄”을 뜻하거나 일반적인 “봉사”를 뜻할 경우에도 ‘종’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예수가 자신을 섬기는 자로 나타낸 것은 식사 시중(눅22:26-27)이나, 더 넓은 의미의 부양과 생계를 돌보는 일(눅8:3; 막15:41; 마24:25), 그리고 특별한 자선 행위(마 25:42-44)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남을 위한 존재”(막9:35; 10:43-45; 마 20:26-28)를 의미한다. 그야말로 온전히 자기 생명을 다바쳐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⁹⁾

◎ ‘사역’의 중요성

봉사(diakonia)는 예수의 제자됨의 결정적 표지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권리, 권력, 학식 또는 위엄이 아니라 봉사이다. 살든지 죽든지 ‘남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봉사에 의해 증거되었고(막10:45; 마20:28), 요한의 해석도 그렇다(요12:25-26).¹⁰⁾ 예수의 제자들은 섬기러 온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응한다. 제자들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 가운데서 삶의 터전을 발견한다.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다. 또한 “작은 자들”(마25:31 이하)을 섬길 때에만 참으로 주님의 임재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갖게되는 것이다.¹¹⁾

◎ ‘사역’의 예

제자들에 대해서 ‘섬김’(사역)이라는 말이 사용된 경우들을 살펴보면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이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양육하는 것(행21:19; 골4:7),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고전12:5; 히6:10; 뱀전 4:10-11),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엡5:21-6:18; 골3:18-4:6; 딤후2:9-10)을 들 수 있다.¹²⁾

9) Hans Kung, op cit., 162-163.

10) ibid.

11) J.C. Hoekendijk, op cit., 167-173.

3. 사역의 성경적 근거는?

◎ 모든 신자는 사역자

하나님은 모든 믿는자를 사역하도록 부르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엡2:10), 사역을 위해서 구원받았으며(딤후1:9),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고(벧전 2:9-10),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으며(벧전4:10), 사역에 필요한 권세를 받았고(마 28:18-20), 사역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며(마20:26-28),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엡4:11-12),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며(고전12:27), 사역을 할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골3:23-24).¹³⁾

◎ 모든 사역이 동등하게 중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사소한 사람은 없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다.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다(고전12:18-22). 어떤 사역은 눈에 띄고 다른 사역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모두가 동등하고 중요하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사역이 흔히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몸의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고전12:22).

◎ 모든 신자, 사역은 상호 의존

모든 신자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가 의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역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못한다. 어떤 사역도, 어느 누구도 홀로 교회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전12:26-30).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병이 나면 다른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돌보는 일(갈6:1-2; 고전12:25-26; 살전5:14-15), 서로 가르치는 일(골3:16; 딤후2:12; 행18:26), 서로 예언하는 일(고전14:5)에 참여해야 한다.

4.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로서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수행한다. 종교개혁자요 ‘기독교강요’의 저자 존 칼빈은 평신도였다. 폴 스티븐스는 평신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¹⁴⁾

◎ 목회자와 양육상담자

스티븐 닐(Stephen Neill)이 편집한 ‘기독교역사 속의 평신도’에 의하면 주후 30-313년

12) Robert Banks, Redeeming The Routines: Bring Theology To Life, Victor Books, 1993. 한화룡 옮김,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IVP, 1994. 38-40.

13)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Church, (Timothy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Michigan), 1995. 김현희, 박경범 옮김.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 새들백교회 이야기, 도서출판 디모데, 1996. 405-437.

14) Paul Stevens, op cit..

의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성례의식에 전적으로 참여했고, 예배를 인도했으며, 징계와 죄의 고백과 사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귀신을 내쫓고 사단의 일을 폐기했다.

그러나 그후 일부 평신도 목회자들은 성직자가 되어 사무실, 직위 그리고 역할에 있어 다른 평신도들과 분리되었고, 다른 평신도 목회자들은 성직자들 때문에 자리를 빼앗겼다. 주후 5세기 이후에는 평신도 목회자들은 보잘 것 없이 되었다. 평신도들의 세속화로 인한 것이다.

◎ 예배인도자와 은사 중개인

옛 계약 아래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한 지파에게 부여 되었고 놀랍게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평신도’의 역할이었다. 예를 들면 스가랴와 같은 사람은 자비량사역자였다(눅1:5-10, 23). 새 계약 아래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공동체이다(벧전 2:9-10).

◎ 직장 사역자

◎ 이웃 전도자

◎ 결혼 및 가정 사역자

◎ 사회정의 사역자

5. 교인의 은사에 따른 사역 : 은사 배치

성도 개인이 자기에게 맞는 사역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미국 서부에서 평신도 사역으로 부흥하고 있는 새들백교회는 다섯 가지의 결정요인들을 가르치고 있다.¹⁵⁾ 이를 앞 글자를 따서 SHAPE라 칭한다.

◎ 영적 은사 (Spiritual gifts) : 고전12; 롬8장; 엡4장. 사역을 통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음.

◎ 마음 (Heart) : 동기, 소원, 관심, 성향 등 (빌2:3)

◎ 능력 (Ability) : 천부적 재능 (예술적 재능, 출31:3; 돈 버는 능력, 신8:18)

◎ 성격 (Personality) : 내성적, 외향적; 보수적, 진취적; 사색형, 감성형; 개인형, 팀웍형.

◎ 경험 (Experiences) : 교육경험, 직업경험, 영적경험, 사역경험, 고난의 경험 등

각자의 SHAPE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형성하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된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롬9:20-21).

6. 사역자 훈련원

-실습훈련

15) Rick Warren, op cit.

V.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리더십 (엡4:13)

1. 하나됨을 추구하라 : Vision 공동체
2. 조직구조를 능률화하라
 - 제직훈련 후 임명할 것 : 제직 훈련과정의 체계화 필요
 - 선 사역자 후 조직
 - 사람들을 신뢰하라 : 권한과 책임의 위임
3. 교회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라